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GasLog leads compatriots in search for scarce LNG carrier yard slots

그리스 LNG선주들이 2026년 인도가능한 조선소까지 찾고 있음. 그 중 GasLog는 대우조선해양과 LNG선 4척 건조 협의, 삼성중공업과 2척 슬롯 상담을 해음.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도 보도됨.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에 접어들며 LNG선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Tradewinds)

Currency shifts sharpen competitive edge of Japan's bulk carrier yards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달러대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중국 위안화는 지난 1년반 동안 강세기조를 보임. 일본 조선업체들이 환율 덕을 보며 특히 중국과 벌크선 건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사들에게 유리해짐. (Tradewinds)

Clarksons Research says OSVs and panamax boxships decline as overall fleet size grows

Clarksons Research는 2017년 이후 6,000척이 늘어났지만, 일부 선종은 선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함. 오프쇼어 선박, panamax 컨테이너선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물류 대란' LA 롱비치항, 컨테이너 잔뜩인데 트럭이 부족

지난 19일 기준, 미국 롱비치항은 트럭 부족으로 여전히 물류난을 겪고 있음. 트럭들이 대기 중이나, 실제로 항구 안으로 들어가는 트럭은 20여분 동안 10대도 되지 않았다고 보도됨. 한 기업대표는 기존 부산-롱비치 노선 운송이 빠르면 3주 걸렸던 반면 현재는 최소 2달 반에서 3달정도 걸리는 상황이라고 인터뷰함. (조선Biz)

내년부터 일감 쏟아진다...조선업계, 생산인력 부족 문제 '발등에 불'

국내 조선 3사가 연간 목표 수주량을 초과 달성하며 2022년 일감에 대한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우려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생산인력은 협력사를 포함해 8,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뉴스핌)

한화시스템, 흥국생명과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 396억원 규모

한화시스템이 흥국생명으로부터 396억원 규모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함.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6월임. (조선Biz)